단위프로그램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여행(증심사)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일반인
참가인원	20명내외

활동목표	• 무등산국립공원 천년고찰 일원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흥미 유발로 탐방객들로 하여금 국립공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하여 자연과 문화재 보호를 이야기 한다.
준비물	• 사진자료 등
유의사항	• 실외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사항 전달(구급약 필히 지참)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첫 인사 ▪ 국립공원 이란?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 식물자원 및 문화자원	20분
전개	▪ 자연관찰로 – 계절에 맞는 나무 이야기 – 무등산 깃대종(수달, 털조장나무)	40분
	▪ 의재길(의재 허백련 문화해설) – 의재 허백련 삶 이해하기 – 춘설헌과 춘설차	20분
	▪ 증심사 역사해설(유래 및 문화재) – 증심사의 역사 – 증심사의 국보 및 보물 찾아보기	30분
마무리	▪ 증심사 사찰의 소감 ▪ 해설 프로그램 질의응답 ▪ 설문지 작성	10분

시나리오	**도입** ▪ 첫 인사 ▪ 국립공원 이란?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 식물자원 및 문화자원 – 진행 시나리오 안녕하십니까?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무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우선 국립공원의 가치와 무등산국립공원의 특징을 통해 국립공원이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가 고루 갖추어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년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만들어 낸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국립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파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서 국민들의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육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국립공원은 전 국토면적의 6.7%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약 70%가량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국립공원을 잘 보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뿐 아니라 국립공원은 자연자원과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구성되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이곳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 화순에 걸쳐있는 광주·전남의 진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리산을 비롯한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이 곳!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난 2013년 3월 4일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무등산은 예부터 무지개를 뿜는 돌과 같다 하여 무돌산 그리고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에서 서석산이라 불리기도하고 증심사 쪽에 무당골이 있어서 또는 큰 당산(마을의 수호신이 있는 산이나 돌)으로 삼아서 무당산으로도 불렸습니다. 여러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무등산은 무돌의 이두음을 써서 고려 때부터 무등산으로 불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등산(無等山)이라 불리는데 무등산의 무등은 “없을 무”에 “등급 등”자를 써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또는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은 해발 1187m의 천왕봉을 중심으로 지왕봉, 인왕봉, 중봉 등 총 13개의 봉우리를 지니고 있으며 무등산의 상징인 주상절리대를 비롯해 총 32개의 기암괴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무등산국립공원은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 입니다. 무등산은 화산암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화산활동은 약 4500만 ~8500만 년 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공룡시대가 종말을 고한 중

생대 말에서 신생대 초까지의 기간으로 흔히 백악기로 지칭됩니다. 다양한 지구 환경의 변화와 마지막 빙하기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번의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무등산은 산의 대부분이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을 중심으로 곳곳에 펼쳐진 서석대, 입석대는 웅장한 암석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주상절리대로 천연기념물 제 4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병이나 역사적으로 많은 선조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으며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입니다.

무등산은 광주·전남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산이라고 생각 할 만큼 아주 애착이 강한 산입니다. 그래서 산의 모양도 어머니의 마음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답니다.

전개

▪ 자연관찰로

– 계절에 맞는 나무 이야기

– 무등산 깃대종(수달, 털조장나무)

– 진행 시나리오

[싸리나무]

싸리나무는 옛날에 주로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하던 나무입니다. 인가에 많이 자랐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던 나무이지요. 등산을 하다보면 등산로 옆에 자란 싸리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싸리나무의 특징이랍니다.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싸리나무를 따라가다 보면 마을이 나올 만큼 사람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처럼 싸리나무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 단단하고 척박해진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 때문에 산에서 사방공사를 마치고 생긴 나지에 심어져 땅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싸리나무와 같은 콩과 식물들은 질소고정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기체성분의 질소를 식물들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랍니다. 또 소설 “태백산맥”을 보면 산에서 인민군들이 전쟁을 할 때 산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나무로 밥을 지어먹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 사용했던 나무가 싸리나무랍니다. 싸리는 건조하고 수분이 적어 화력이 강해서 연기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동나무]

예전에는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유는 딸이 시집을 가면 그 나무로 장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무가 20년 동안 얼마나 자란다고 장롱을 만들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동나무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트리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오동나무는 소리를 전달하는 성질이 좋아서 거문고, 비파, 가야금 같은 악기를 만드는데도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프거나 늙지 않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는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짚는 지팡이를 상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치르기 때문에 보통사람들도 몸이 많이 허약해져 몸을 지탱할 지팡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지팡이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를 짚었는데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심정이라해서 대나무를 어머

니가 돌아가시면 속이 구멍이 난 것처럼 허하다 해서 오동나무를 짚는다고 합니다.

깃대종이란 특정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동,식물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종을 말합니다. 우리 무등산 국립공원의 깃대종은 수달과 털 조장나무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수달은 멸종위기종으로 무등산에서는 2마리가 4수원지와 평두메 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털 조장나무는 생김새가 마치 생강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조계산과 무등산의 제한된 지역에 분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재길(의재 허백련 문화해설)

– 의재 허백련 삶 이해하기 및 의재미술관

– 춘설헌과 춘설차

이곳에 왜 의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이 곳 광주 무등산자락에 1938년부터 40여 년간 머물며 많은 명작들을 완성하고 연진회를 조직하여 한국화의 맥을 이어나갔던 의재 허백련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재 허백련은 진도 출신으로 소치 허련의 고손자뻘인 후손입니다. 남종화의 마지막 대가로 초창기에는 중국풍의 수묵화를 그리다 차츰 창의적인 수묵화를 그리신 분입니다. 호는 의재 일본 메이지 대학을 다니면서 동경에서 약 6년간 머무르며 일본의 대표적 남종화가 고무로의 영향을 받아 정통 남종 산수화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의재미술관으로 “2001년 한국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건물이며 안쪽으로 들어 가보면 미술관 로비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병풍의 형태로 무등산의 사계절을 언제나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비탈에 세워진 건물인 만큼 산 아래쪽이 더 넓고 위쪽이 더 좁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미술관 내외 경사로는 무등산 등산로의 경사로와 같게 하여 마치 산을 걷는 느낌을 준다고 하니 다들 한 번씩 방문해서 전시된 작품도 보시고 화장실 칸칸이 넓이와 모양도 다르다고 하니 건물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936년 조선미술원 설립하였고 1947년에 광주에 농림기술학교를 세웠습니다.

위쪽으로 뻗어 있는 오솔길로 직진하면 의재선생 묘와 옛 농업학교 예전의 계사터·양사·돗사터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건물 한 채가 보이는데 춘설헌이라는 곳입니다. 의재선생님이 1958년에 지은 화실이자 살롱입니다. 의재선생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모여서 그림을 그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곳을 벗어나 증심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 증심사 역사해설(유래 및 문화재)

– 증심사의 역사

– 증심사의 유물과 문화재

자! 그럼 지금부터 14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증심사 여행을 떠나보실

까요? 증심사는 무등산 서쪽 기슭의 등산로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로 무등산의 대표적인 불교도량이며 광주시내 인근에서는 가장 큰 사찰로서 예로부터 그 법고 소리가 끊임없이 광주고을에 울려왔다고 합니다. 증심사 사찰의 화려한 단청과 깊은 나뭇결 이끼 낀 기와와 돌담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 그 고풍스런 분위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 증심사는 얼마나 오랜 역사를 지녔을까요?

증심사는 통일신라 헌안왕 4년 860년 철감선사 도윤께서 창건하셨습니다. 고려 때 혜조국사가 중건하였으며 조선 세종 때 김방이 중수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유재란과 1951년 한국전쟁때 50여명의 무장공비들에 의하여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참화를 피한 오백전이 유일한 조선조의 건물로 남은 상태로 1970년 대웅전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크게 증축 복원하면서 증심사는 시련의 종지부를 찍었답니다.

증심사는 "깨닫다證, 마음心, 절寺"로 풀어보자면 마음을 증득하다. 즉 "마음을 깨닫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증득이란 "올바른 지혜로 바른 진리를 깨달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문으로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일직선상에 두 개의 기둥이 큰 지붕 하나를 용케도 바치고 있는 모습이며 한문으로는 한일(一), 기둥주(柱), 문문(門)자를 써서 일주문(一柱門)이라 합니다. 특이하게 부산의 범어사와 양산의 통도사의 일주문은 굵은 기둥이 4개나 되지만 사주문이라 하지 않고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개의 기둥이 한일자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형태로 그 의미는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우리 속인들이 사는 속계와 스님들의 수행공간이자 부처의 진리가 가득한 법계로 나누어지는 경계로서 진리를 찾아 성불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일주문 다음에 있는 천왕문입니다.



동서남북의 사천왕을 모시는 문인데요. 불법을 수호하고 사악한 마군을 방어한다는 뜻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동쪽을 수호하는 지국천왕은 '선한 이에게 복을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남쪽을 수호하는 증장천왕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덕'을 베푼다. 서쪽을 수호하는 광목천왕 '악인에게 고통을 줘 구도심을 일으키게' 하고 북쪽을 수호하는 다문천왕 '어둠 속을 방황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천왕에 손에는 칼, 보석, 용과 여의주, 삼지창, 보탑, 비파 등의 지물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한 지물들은 시대와 소의경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의경전은 불교 경전으로 각 종파에서 근본경전으로 의지하는 경전을 말합니다.

사천왕문을 지나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대웅전이 나옵니다. 대웅전은 사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웅은 고대인도 마하비라를 번역한글로 석가모니는 위대한 인물이라 일컬은 데서 대웅전이라는 명칭이 유래 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석가여래좌상을 중앙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로 두었는데 일반적으로 석가삼존상이면 석가모니불 좌우 협시로 문수·보현보살이 오는 것이 상례인데, 증심사 대웅전의 경우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보안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곳에는 국보 문화재가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금동석가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의 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대웅전 뒤편을 지나 걸어가면 5층석탑과 각층의 4면에 범자가 새겨진 범자칠층석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백전 건물 앞에 증심사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신라 하대의 탑으로 1971년 12월에 해체 복원했는데 당시에 어떠한 유물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이미 도굴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우리민족의 역사에 꼭 필요한 자료가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외세의 침입을 받아오면서 많은 문화재 들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 있는 문화재가 도굴로 사라져 찾을 수 없게 되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금에서라도 남겨진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고 보전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오백전입니다. 오백전은 무등산에 남아 있는 사찰 건물들 중 현재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1443년(세종 25년)의 건물로 강진의 무위사 극락전과 계통을 같이 합니다. 오백전은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1609년 석경·수장·도광의 삼대선사가 사창하였을때 오백전이 건립되어 다행이도 6·25전쟁의 참화를 빗겨가 오늘날 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백전은 전라감사 김방이 오백나한과 10대제자의 성상을 만들어 봉안하고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기 위하여 지은 전각입니다. 내부에는 주존인 석가모니불좌상과 10대제자상, 오백나한상을 모시고 있는데, 이곳에 모셔진 오백나한상은 개미와 관련된 설화가 있습니다.

전라감사 김방이 경양(景陽) 방죽 대공사를 맡았는데 어느날 공사 현장에서 커다란 개미집을 발견했다. 불심이 깊은 그는 개미집을 그대로 무등산 기슭에 옮겨 주었다. 그 무렵 김방의 가장 큰 고민은 공사에 동원된 수많은 일꾼들의 식량을 조달하는 일이었다. 어느날 그가 양식 창고에 가보니 개미들이 줄을 지어 쌀을 물고 창고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후 개미들의 행렬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김방은 개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증심사에 오백전을 지어 오백나한상을 봉안하는 불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백전 옆에 있는 비로전으로 가볼까요?

비로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전각입니다. 비로자나란 '무한한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는다.'는 뜻으로 대광명의 화엄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는 범어 바이로차나(vairocana)를 음역하여 비로자나라고 합니다. 증심사 비로전은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31호)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철불은 원래부터 증심사에 보안되어 온 것이 아니고 구 도청 뒤에 있던 대황사가 1930년 폐사되면서 옮겨 왔다고 합니다. 그럼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모습을 자세히 볼까요?

비로자나불은 통일신라 9세기 이후 유행하였으며 지리산 내원사 소장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이 최고이며, 보림사,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습니다. 증심사 철불은 보림사불과 비교해볼 수 있는데요. (보림사 철조비로좌나불 사진) 비교하기 전에 우선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아시나요?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알려면 먼저 문화재보호법을 봐야 하는데요 문화재보호법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항을 살펴보면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보물 가운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국보1호는 숭례문이죠? 남대문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보물1호는 무엇일까요? (질문)

네. 답은 홍인지문입니다. 동대문이라고도 하죠? 같은 문인데 하나는 국보이고 다른 하나는 보물입니다. 몇 년 전 숭례문 전소 사건 때, 숭례문을 거의 새로 개축 하면서 역사적 가치를 재고해 홍인지문을 국보로 대신해야 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화재 중에서도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것을 국보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보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과 보물인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먼저 손의 모양 다르죠? 불상의 손모양을 수인이라고 합니다. 보림사 비로자나불은 지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심사의 비로자나불은 왼손과 오른손이 바뀌었죠? 그리고 검지 손가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아마 불상을 만들었던 장인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점을 찾아 볼까요?

귓불의 크기와 얼굴의 모양이 다르죠?

증심사의 철불은 귓불이 작으면서 얼굴도 동안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입가에 남아 있는 가벼운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 철불이 만들어진 지역적 특색이 불상에 담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주지역 사람들의 온화한 미소를 담았습니다. 또 다리의 모양이 다르죠? 불상의 앉아 있는 모습을 결과부좌라고 합니다. 부처가 좌선할 때 취하는 편안한 자세로 금강좌 선정좌 여래좌라고도 하는데요 여래가 주로 취하는 자세로는 길상좌로 왼발을 오른쪽 다리 위에 얹은 다음 오른발을 밖에서 왼쪽 다리에 얹은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간다라 불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길상좌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불상에서도 길상좌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심사의 철불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왼발이 오른발위로 올라오는 항마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사진으로는 비교가 어렵지만 증심사 철불은 보림사불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상체의 어깨와 무릎의 폭이 넓어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무등산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여행 해설을 하였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지금 여러분 주위를 쭉 둘러싸고 있는 산의 이름은 무돌산, 무당산, 무진악, 서석산, 또는 무등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개명이 되다가 지금은 무등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즉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증심사는 증거증, 마음심, 뫼산을 써서 증심사라 불립니다. 해석을 하면 마음을 증득한다. 즉"바른 지혜로 진리를 깨닫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무등산 증심사라는 글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며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질의 응답)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설문을 통해 꼭 작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설문을 토대로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 여행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위프로그램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여행(약사사)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일반인
참가인원	20명내외

활동목표	• 무등산국립공원 천년고찰 일원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흥미 유발로 탐방객들로 하여금 국립공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하여 자연과 문화재 보호를 이야기 한다.
준비물	• 사진 자료 등
유의사항	• 실외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사항 전달(구급약 필히 지참)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첫 인사 ▪ 국립공원 이란?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 식물자원 및 문화자원	20분
전개	▪ 자연관찰로 – 계절에 맞는 나무 이야기 – 무등산 깃대종(수달, 털조장나무)	40분
	▪ 의재길(의재 허백련 문화해설) – 의재 허백련 삶 이해하기 – 춘설헌과 춘설차	20분
	▪ 약사사 역사해설(유래 및 문화재) – 약사사의 보물 제600호 석조여래좌상 – 불교 식물의 의미(상사화, 연꽃)	30분
마무리	▪ 약사사 사찰의 소감 ▪ 해설 프로그램 질의응답 ▪ 설문지 작성	10분

시나리오

도입

안녕하십니까?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무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우선 국립공원의 가치와 무등산국립공원의 특징을 통해 국립공원이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가 고루 갖추어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년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만들어 낸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국립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파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서 국민들의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육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국립공원은 전 국토면적의 6.7%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약 70%가량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국립공원을 잘 보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뿐 아니라 국립공원은 자연자원과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구성되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이곳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 화순에 걸쳐있는 광주·전남의 진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리산을 비롯한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이 곳!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난 2013년 3월 4일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무등산은 예부터 무지개를 뿜는 돌과 같다 하여 무돌산 그리고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에서 서석산이라 불리기도하고 증심사 쪽에 무당골이 있어서 또는 큰 당산(마을의 수호신이 있는 산이나 돌)으로 삼아서 무당산으로 도 불렸습니다. 여러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무등산은 무돌의 이두음을 써서 고려 때부터 무등산으로 불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등산(無等山)이라 불리는데 무등산의 무등은 “없을 무”에 “등급 등”자를 써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또는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은 해발 1187m의 천왕봉을 중심으로 지왕봉, 인왕봉, 중봉 등 총 13개의 봉우리를 지니고 있으며 무등산의 상징인 주상절리대를 비롯해 총 32개의 기암괴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무등산국립공원은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 입니다.

무등산은 화산암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화산활동은 약 4500만 ~8500만 년 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공룡시대가 종말을 고한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초까지의 기간으로 흔히 백악기로 지칭됩니다. 다양한 지구환경의 변화와 마지막 빙하기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번의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무등산은 산의 대부분이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을 중심으로 곳곳에 펼쳐진 서석대, 입석대는 웅장한 암석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주상절리대로 천연기념물 제 465호

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병이나 역사적으로 많은 선조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으며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입니다.

무등산은 광주·전남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산이라고 생각 할 만큼 아주 애착이 강한 산입니다. 그래서 산의 모양도 어머니의 마음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답니다.

전개

▪ 자연관찰로

– 계절에 맞는 나무 이야기

– 무등산 깃대종(수달, 털조장나무)

– 진행 시나리오

[싸리나무]

싸리나무는 옛날에 주로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하던 나무입니다. 인가에 많이 자랐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던 나무이지요. 등산을 하다보면 등산로 옆에 자란 싸리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싸리나무의 특징이랍니다.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싸리나무를 따라가다 보면 마을이 나올 만큼 사람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처럼 싸리나무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 단단하고 척박해진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 때문에 산에서 사방공사를 마치고 생긴 나지에 심어져 땅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싸리나무와 같은 콩과 식물들은 질소고정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기체성분의 질소를 식물들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랍니다. 또 소설 “태백산맥”을 보면 산에서 인민군들이 전쟁을 할 때 산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나무로 밥을 지어먹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 사용했던 나무가 싸리나무랍니다. 싸리는 건조하고 수분이 적어 화력이 강해서 연기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동나무]

예전에는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유는 딸이 시집을 가면 그 나무로 장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무가 20년 동안 얼마나 자란다고 장롱을 만들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동나무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트리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오동나무는 소리를 전달하는 성질이 좋아서 거문고, 비파, 가야금 같은 악기를 만드는데도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프거나 늙지 않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는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짚는 지팡이를 상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치르기 때문에 보통사람들도 몸이 많이 허약해져 몸을 지탱할 지팡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지팡이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를 짚었는데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심정이라해서 대나무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속이 구멍이 난 것처럼 허하다 해서 오동나무를 짚는다고 합니다.

깃대종이란 특정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종을 말합니다. 우리 무등산 국립공원의 깃대종은 수달과 털 조장나무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수달은 멸종위기종으로 무등산에서는 2마리가 4수원지와 평두메 쪽에서 발견이 되었습

니다. 다음으로 털 조장나무는 생김새가 마치 생강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조계산과 무등산의 제한된 지역에 분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재길(의재 허백련 문화해설)

– 의재 허백련 삶 이해하기 및 의재미술관

– 춘설헌과 춘설차

이곳에 왜 의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이 곳 광주 무등산자락에 1938년부터 40여 년간 머물며 많은 명작들을 완성하고 연진회를 조직하여 한국화의 맥을 이어나갔던 의재 허백련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재 허백련은 진도 출신으로 소치 허련의 고손자뻘인 후손입니다. 남종화의 마지막 대가로 초창기에는 중국풍의 수묵화를 그리다 차츰 창의적인 수묵화를 그리신 분입니다. 호는 의재 일본 메이지 대학을 다니면서 동경에서 약 6년간 머무르며 일본의 대표적 남종화가 고무로의 영향을 받아 정통 남종 산수화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의재미술관으로 “2001년 한국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건물이며 안쪽으로 들어 가보면 미술관 로비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병풍의 형태로 무등산의 사계절을 언제나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비탈에 세워진 건물인 만큼 산 아래쪽이 더 넓고 위쪽이 더 좁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미술관 내외 경사로는 무등산 등산로의 경사로와 같게 하여 마치 산을 걷는 느낌을 준다고 하니 다들 한 번씩 방문해서 전시된 작품도 보시고 화장실 칸칸이 넓이와 모양도 다르다고 하니 건물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936년 조선미술원 설립하였고 1947년에 광주에 농림기술학교를 세웠습니다.

위쪽으로 뻗어 있는 오솔길로 직진하면 의재선생 묘와 옛 농업학교 예전의 계사터·양사·돗사터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건물 한 채가 보이는데 춘설헌이라는 곳입니다. 의재선생이 1958년에 지은 화실이자 살롱입니다. 의재선생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모여서 그림을 그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곳을 벗어나 약사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 약사사 역사해설(유래 및 문화재)

– 약사사의 보물 제600호 석조여래좌상

– 불교 식물의 의미(상사화, 연꽃)

지금 와있는 이곳은 약사암입니다. 약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약사사의 창건 유래는 신라시대에 도윤(道允)이 847년(문성왕 9) 당나라에서 귀국한 뒤 창건하여 인왕사(人王寺)라고 했다가, 고려 예종(1105~1122) 때 국사 혜조(慧照)가 중창하면서 절 이름을 약사암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1856년(철종 7) 3월에 성암(性庵)이 약사전을 중수하고, 1905년 9월에

선주(善周)가 관찰사 주석면(朱錫冕) 등 관청의 도움과 시주로 중건했다. 1970년대부터 주지 석담(石潭)이 법당과 요사채 등을 중건·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절에는 주위의 수려한 풍광과 어우러져 참선·휴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운림당(雲林堂)·선원·큰방·요사채 등이 있습니다. 대웅전은 1980년대에 지었는데 안에는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조성한 석조여래좌상(보물 600호)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불상은 1975년 8월 4일 보물 600호로 지정된 석조여래좌상입니다. 통신신라 말에서 고려시대 초 사이의 작품으로 정확한 연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불상 모양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의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강암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되었고, 동일한 석재로 만든 광배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불상은 항마촉이진으로 석가모니가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악마를 항복시키고 성취한 정각(바르게 깨닫다)을 지신(대지를 주관하는 신)이 증명하였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불상은 경주에 있는 석굴암을 정점으로 발전하여 그 이후에는 전형적인 양식이 사라지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양식으로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상사화]

상사화는 스님을 사랑한 어느 여인의 슬픈 전설을 안고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불공을 드리려고 절집은 찾은 어느 여인이 그곳에서 만난 스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스님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스님을 향한 마음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 상사병으로 죽었고 그녀의 육신은 화장으로 불사라 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불타는 동안 그녀의 마음도 불꽃에 사그라졌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야 사연을 듣게 된 스님은 유골 일부를 자신이 기거하는 법당 옆 화단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 후 스님은 이생에서 못다 한 인연을 애달프게 생각하고 화단을 지날 때마다 그녀가 극락왕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듬해 봄 노랗게 생긴 잎이 돋아나 길쭉하게 자라더니 유월이 되고 여름 해가 뜨거워지자 잎은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 한 달쯤 지나자 꽃대가 돋아나 고운 꽃을 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꽃의 이름이 바로 상사화입니다. 상사화는 꽃과 잎이 함께 자라지 못하고 따로따로 돋아나 꽃은 꽃대로 피고 잎은 잎대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꽃은 잎을 생각하고 잎은 꽃을 생각하지만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하여 상사화라 합니다. 그래서 유독 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단지 그 전설 이야기 때문에 사찰에 많이 심어져 있기 보다는 쓰임새가 요긴하기 때문입니다. 뿌리에 방부제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탱화를 그릴 때나 단청을 할 때 찧어서 바르면 좀처럼 좀이 슬거나 색이 바래지 않으며 비늘줄기에 품은 유독물질을

제거한 다음 얻은 녹말로 한지를 붙이면 강력한 살균력 때문에 역시 좀이 스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꽃]

연꽃은 불교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꽃은 바로 부처의 가르침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 뿌리는 비록 더러운 시궁창에 담그고 있을지라도 그 자신은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주변까지 정화시킨다는 처염상정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어 인과응보를 보여주기도 하고 줄기속이 비어 무소유를 그리고 둥근 연잎은 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무리

오늘 저와 함께'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여행'프로그램을 참가하셨는데요.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잘 보전 된 자연과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간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설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신가요?(질의 응답)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설문을 통해 꼭 작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설문을 토대로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 여행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였습니다.

단위프로그램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여행(원효사)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 일원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일반인
참가인원	20명내외

활동목표	• 무등산국립공원 천년고찰 일원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흥미 유발로 탐방객들로 하여금 국립공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하여 자연과 문화재 보호를 이야기 한다.
준비물	• 사진자료
유의사항	• 실외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사항 전달(구급약 필히 지참)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첫 인사 ▪ 국립공원 이란?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 식물자원 및 문화자원	20분
전개	▪ 자연관찰로 – 너덜의 생성과 풍화작용 – 계절에 따른 식물이야기	40분
	▪ 제철유적지 – 원효계곡 – 제철유적지의 유래와 역사(의병장 김덕령 이야기)	20분
	▪ 원효사 역사해설(유래 및 문화재) – 원효사의 유래 – 무등루에서 명상 및 원효8경 이야기	30분
마무리	▪ 원효사 사찰의 소감 ▪ 해설 프로그램 질의응답 ▪ 설문지 작성	10분

시나리오

도입

안녕하십니까?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무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우선 국립공원의 가치와 무등산국립공원의 특징을 통해 국립공원이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가 고루 갖추어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년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만들어 낸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국립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파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서 국민들의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육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국립공원은 전 국토면적의 6.7%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약 70%가량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국립공원을 잘 보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뿐 아니라 국립공원은 자연자원과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구성되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이곳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 화순에 걸쳐있는 광주·전남의 진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리산을 비롯한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이 곳!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난 2013년 3월 4일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무등산은 예부터 무지개를 뿜는 돌과 같다 하여 무돌산 그리고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에서 서석산이라 불리기도하고 증심사 쪽에 무당골이 있어서 또는 큰 당산(마을의 수호신이 있는 산이나 돌)으로 삼아서 무당산으로 도 불렸습니다. 여러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무등산은 무돌의 이두음을 써서 고려 때부터 무등산으로 불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등산(無等山)이라 불리는데 무등산의 무등은 “없을 무”에 “등급 등”자를 써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또는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은 해발 1187m의 천왕봉을 중심으로 지왕봉, 인왕봉, 중봉 등 총 13개의 봉우리를 지니고 있으며 무등산의 상징인 주상절리대를 비롯해 총 32개의 기암괴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무등산국립공원은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 입니다.

무등산은 화산암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화산활동은 약 4500만 ~8500만 년 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공룡시대가 종말을 고한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초까지의 기간으로 흔히 백악기로 지칭됩니다. 다양한 지구환경의 변화와 마지막 빙하기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화산폭발로 인해 정상부 중심으로 곳곳에 펼쳐진 서석대, 입석대는 웅장한 암석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주상절리대로 천연기념물 제 4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병이나 역사적으로 많은 선조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으

며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입니다.

무등산은 광주·전남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산이라고 생각 할 만큼 아주 애착이 강한 산입니다. 그래서 산의 모양도 어머니의 마음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답니다.

전개

▪ 제철유적지

– 원효계곡

– 제철유적지의 유래와 역사(의병장 김덕령 이야기)

무등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북쪽으로 원효계곡, 남쪽으로 용추계곡, 서쪽으로는 증심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 원교계곡은 무등산 정상 서북쪽 가파른 경사면을 흘러내려 '원효골'이라고도 부르며, 약 9km에 이르는 무등산의 긴 계곡중 하나입니다.

숲이 싱그러운 이유는 그곳에 맑은 공기와 이러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숲에 비가 오면 빗물은 우선 나무의 줄기와 잎을 적시고 나머지는 땅속에 스며든다. 스며든 물이 모두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나무의 뿌리에 흡수돼 증산작용을 통해 공기로 돌아가고 지표면에서 증발되는 양도 적지 않습니다. 얕은 땅속에 스며든 빗물은 곧 계곡으로 빠져나간다. 흙 입자 사이에 틈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속으로 침투한 물은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 비가 그친 뒤에도 꾸준하게 물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숲이 얼마나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는지는 토양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잘 가꾼 산림은 시간당 약 200㎜ 이상의 강우를 땅속에 가두고 웬만큼 비가 쏟아져도 흙탕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다녀 다져진 길은 기껏 시간당 약 13㎜밖에 빗물을 저장할 수 없어 차이 굉장히 큽니다.

같은 산림이라도 어떤 나무가 어떻게 가꾸어졌는가에 따라 녹색댐의 용량이 달라집니다. 큰키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하면 햇빛을 가려 키작은 나무가 자랄 수 없게 되고 낙엽을 분해하는 미생물과 토양소동물도 사라져 토양은 활력을 잃고 단단해집니다. 당연히 빗물을 머금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은 침엽수 인공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침엽수의 바늘잎은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형성이 느리고 잎의 큐틴질(식물의 표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에 층을 이루고 있는데 물에 녹지 않으며 산에도 견딤)이 빗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것을 방해한다. 게다가 상록수여서 연중 강수를 잎에서 흡수한다. 그래서 침엽수림은 활엽수림보다 물 손실량이 높습니다.

사시사철 마다 각각의 풍광이 산수화를 그리고 원효계곡의 물은 곳곳에 소동천을 이룹니다. 여름이면 많은 탐방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으며, 계곡의 하류에는 풍암제라는 곳을 만들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1급 수달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철유적지를 설명하려면 김덕령 장군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덕령 장군은 임진왜란 때 권율의 휘하에서 의병장 곽재우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왜병을 격파한 의병장입니다. 김덕령의 죽음은 이몽학의 난에 연루되어 억울

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1593년 늦은 가을, 전라도 관찰사 이정암과 젊은 유생 김덕령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풍문에 따르면 김덕령의 용기는 하늘을 가르고, 용력은 범과 대적해도 밀리지 않는다고 했고, 이정암은 국가의 위급함이 중하니 호남의 의병들앞에 서줄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상복을 몸에 걸쳤으니'효'를 굽혀'충'을 펴기 곤란하다는 뼈아픈 거절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나라가 사라지면 어버이도 없는 것이니 이 또한 효를 어기는 것....."김덕령이 의병장이 되고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명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의병을 관군으로 흡수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관군화하거나 의병군을 관군에 예속시키는 두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팔도의 모든 의병을 혁파해 충용장 김덕령을 의병군으로 통합시킵니다. 김덕령을 조선의병 총수로 임명하고 마침내 김덕령의 이름은 팔도에 고루 펴졌습니다.

왕의 신임을 질투하는 대신들과 허울뿐인 왕은 불안했고, 대신들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1596년 7월 이몽학(李夢鶴)의 모반을 토벌하러 출정하였다가 무고를 받아 고문당한 끝에 옥사하였습니다.

선조는 의병들의 칼날이 왜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고 두려움에 떨었고 조선의 의병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죽음의 이유가 됐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전란 수습에 동분서주해 백성의 믿음을 얻었던 아들 광해군에까지 극심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 자연관찰로

– 너덜의 생성과 풍화작용

– 계절에 따른 식물이야기

– 진행 시나리오

무등산 형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8천7백만년 ~ 8천5백만년 전 약 3차례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형성 되었습니다. 화산 분출 후 11만년 전 빙하기를 거치면서 용암과 화산쇄설물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냉각, 수축되면서 표면은 육각형과 같은 다각형이 되고, 또한 그러한 수축이 수직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주상절리가 만들어 지게 되는데, 현재 최소11㎢ 이상 대규모로 존재하는 주상절리대는 연구가 계속된다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석대와 서석대를 포함한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그 지질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천연기념물 제465호 지정이 되었다.

보통 한탄강주상절리나 제주도 주상절리는 신생대시대에 암석은 주로 현무암이고 바다 또는 강가에 있는 것과 달리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중생대시대에 암석은 무등산용결응회암이며 산 정상부에 있다는 차별성과 단일개체로서의 크기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지형지질자원으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2일에는 무등산권 UNESCO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산비탈에서 볼 수 있는 너덜은 암석의 풍화과정을 살 펴 볼 수 있는 무등산만의 독특한 지형이라고 할 있다. 너덜지대로 대표되는 곳은 덕산너덜과 지공너덜이 있습니다. 너덜은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이라는 뜻으로 무등산 정상부의 주상절리가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산비탈로 굴러 떨어져 만들어진 돌무더기 지대입니다. 약 11만년전, 무등산이 마지막 빙하기를 거치면서 바위의 틈에 있던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해 풍화되어 바위들이 굴러 떨어져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

졌습니다. 너덜은 세월이 흘러 현재 모습으로 자생 식물과 너덜의 조화로 너덜지대에도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 조릿대의 생태적지위

조릿대는 우리나라 산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어 산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울릉도의 섬조릿대의 열매는 폭풍으로 육지로 나올 수 없던 사람들이 먹기도 하였고 제주도 자생조릿대의 열매와 뿌리 또한 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조릿대는 숲의 아래를 덮어 주는 양탄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양탄자는 숲에 사는 작은 동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줍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늘에서도 조릿대만큼은 사계절 푸름을 자랑하며 잘 자랍니다. 뿌리줄기는 흙이 쓸려나가는 걸 막아주고 자칫 황량해 보일 수 있는 겨울에도 눈 속에서 멋진 풍경을 연출해 줍니다.

한 달 정도에 조릿대의 수직 성장이 거의 다 끝나고 더 이상 굵어지지 않습니다. 줄기는 마디마다 나오는 연한 갈색 잎 집에 덮여 있고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아 겉이 거무스름한 회갈색입니다.

줄기가 나온 지 5~6년 후 4월경에 가지 끝에서 검은 자주색으로 꽃이 피면 5~6월경에 작고 긴 타원형의 열매가 회갈색으로 여물고 열매가 맺히면 줄기 위쪽부터 말라 죽어가며 다음해가 군락 전체가 허옇게 죽어갑니다.

밀집된 조릿대류의 하층부는 상층으로부터 떨어지는 종자의 침투를 어렵게 하며, 침투한 종자라 할지라도 조릿대류로 부터 분비되는 타감 물질들에 의해 발아가 억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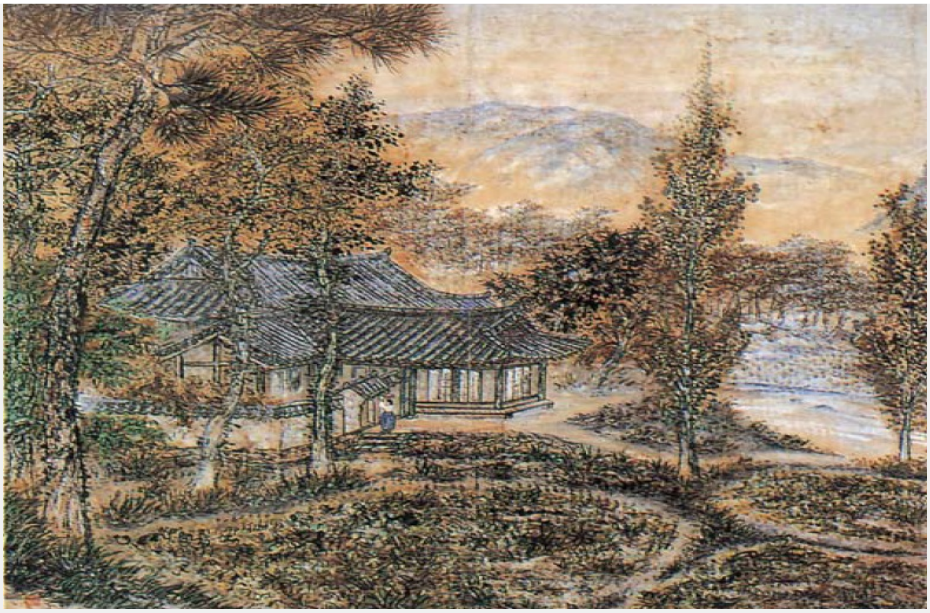
상층목의 후대목이나 다른 관목의 치수들은 다른 관목의 치수들은 조릿대류의 빽빽한 수관에 가려 제대로 생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숲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조릿대는 부분적으로 고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조릿대 낙엽으로 인한 질 좋은 토양 상태는 숲의 주요 수종들의 침입과 발생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교목성 수종이 자라게 된다.

▪ 원효사 역사해설(유래 및 문화재)

- 원효사의 역사와 유래
- 원효사의 문화재

무등산을 대표하는 사찰 원효사는 무등산 북쪽 의상봉을 마주한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증심사, 원효사 등 광주 근교사찰들은 호남세력이 절정에 달했던 9세기 전후에 세워졌는데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원효국사가 산지 수려한 이곳에 암자를 세워 지냈으므로 절 이름을 원효암이라 했고 창건연대는 아마도 신라 지증왕, 법흥왕의 양 대에 세워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효대사의 실제 생존 연대는 이보다 약 1백년 후(617~686년)가 되므로 위의 지증·법흥 양 대의 창건설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원효사의 창건 내력을 적은 기록으로는 1637(인조15년)년 『불상기』, 1641년(인조19년)의 『법당 중창기』, 1847년(헌종13년)에 기록된 『원효암 중건기』, 1894년(고종31년)의 『원효암 중수 상량문』 등에 비교적 자세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원효암 중건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조선사찰자료』(상권, 조선총독부 간,1918년)에 실린 것입니다.



[원효사 실경 사생화(동강 정운면)]

참고로 육당 최남선이 『심춘순례』에서 한국전쟁의 전화를 입기 이전 원효사의 모습을 적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당(대웅전)과 범절이 당당한 사찰의 풍모를 갖추었다. 본존인 석가여래상이 거룩하시고 사자의 등에 지운 대법고는 다른데서는 못 보던 것이다. 대웅전 오른편에 있는 영자전에는 정면에 달마로부터 원효, 청허 내지 서월까지의 대탱을 걸고 따로 1774년(영조50년)에 담양 서봉사에서 옮겨 모신 원효화탱을 걸었다. 나한전, 명부전, 선방, 칠성각 같은 것은 다 있고 불상도 볼만하니 그래도 원효의 창사 이래 오랫동안 명찰이던 자취가 남아 있다.

1977년 신법타주지스님이 새로 부임해 와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약 5년에 걸쳐 현재의 대웅전을 비롯하여 지장전·요사채 등 3동을 중창 복원하였습니다. 1989년 현지스님이 부임해와 원효대사의 영정을 모시는 개산조당, 약사전, 삼성각, 회암루등이 신축되었습니다. 또 요사채인 심검당은 2층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으며 그 밖에 종각, 수각, 봉향각, 오층석탑, 석등이 건립되어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등산 남쪽 규봉암은 의상(625~702)대사가 창건하고 북쪽 원효계곡의 원효사는 같은 시대의 원효(617~686)대사가 초창했다는 연기설화가 있습니다. 남쪽의 증심사는 조계종계 송광사의 말사이고 원효사는 태고종계 선암사의 말사였던 것도 대조적입니다. 두 사찰 모두 정유재란 때 불에 타 없어져 인조 때 복설했으나 원효사는 한국전쟁 때 또다시 불타 신도들의 손으로 5년여에 걸쳐 1960년 대웅전과 요사채를 마련했습니다. 1977년 법타스님에 의해 오늘날 모습으로 중창되엇습니다. 조선시대 광주목 지도에도 증심사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원효사는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광주고을에서 거리가 멀어 격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효사의 범종]



[원효사의 범종각]

이 범종은 원효사 대웅전 안에 보관되어 오다가 현재 요사채인 무등선원으로 옮겼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 사용하고 이 범종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의 형태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형식으로 높이 86cm, 지름 63cm, 몸통 73cm로 윗부분에는 음통이 없이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얽힌 듯한 고리를 하고 상대에는 범자가 양각되어 있습니다. 몸통 중앙으로 내려와 4면에 보살상을 새기고 그 사이에는 네모진 유곽에 9개의 연꽃 봉오리가 돌출해 있으며 몸통 중앙에 주조 연대와 소속 사찰을 새겨놓았습니다.

위 기록에 의하면 1710년에 추월산 만수사에서 성종 비구들이 이 범종을 주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라남도 내에 전해지고 있는 범종 가운데 대흥사 성보박물관의 탑산사종이 보물 제88호로 곡성 태안사 동종이 보물 제 1349호로 각각 지정되었고 2008년 3월 12일 자로 고흥 능가사 범종이 보물 1557호, 담양 용흥사 순치원년 명 범종이 보물 1555호, 여수 흥국사 범종이 보물 1556호, 순천 선암사 범종이 보물 제 1558호, 순천 선암사 대각암 범종도 보물 제156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평 보광사 범종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172호로 순천 향림사 범종이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제287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광주 원효사 범종은 광주시로 이관되어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지방의 범종으로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은 모두 36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원효사에는 서양화의 거봉인 오지호가 그린 탱화가 있습니다.

오지호는 한국전쟁 당시 불타버린 원효사의 복원불사가 진행되던 1954년 독실한 불교신자인 그의 장모 지응현여사의 간청으로 이 불화를 그렸는데 가로 198cm, 세로 152cm의 거작입니다. 가운데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뒤쪽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그린 전형적인 불화입니다. 명주베 바탕에 식물성 특수안료와 아교를 섞은 물감을 사용한 작품으로 서양화가인 오지호 특유의 강렬한 색조가 나타나 있는 그림입니다. 그는 불교도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작업에 앞서 향을 피우고 경건한 예를 갖추어 3개월여동안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지호의 탱화]

– 무등루의 전경

낮에는 무등루에 앉아 무등산을 바라보면 과연 여기가 바로 명당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숲 저 너머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을 수 있는 곳으로 누마루 난간에 걸터앉으면 무등산의 정기가 온 몸속으로 스며들고 아름다운 소나무가 경관을 이루는 의상봉, 의상봉의 오른쪽에 우뚝 솟은 윤필봉, 멀리 정상인 천왕봉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장관을 이룹니다.

– 무등루[원효8경]

원효지구에서 꼭 봐야 할 8곳의 풍경, 일명 '원효8경'이 있습니다. 무등루에서 볼 수 있는 무등산을 바라볼까요. 감상해볼까요?

무등명월(無等明月): 무등산 정상에 솟아오른 달을 바라보는 운치.

원효모종(元曉暮鐘): 저녁 어스름 사이로 들려오는 원효사 종소리.

의상모우(義湘暮雨): 해 저물녘 의상봉에 내리는 비의 너울.

서석귀운(瑞石歸雲): 서석대에 감겨드는 뭉게구름.

안양노불(安養老佛): 안양사의 오래된 부처님.

삼전열적(蔘田烈蹟): 삼밭실에 서려있는 충장공의 충절.

만치초적(晩峙草笛): 늦재에서 들려오는 나무꾼들의 풀피리 소리.

원효폭포(元曉瀑布): 장쾌하게 쏟아지는 원효폭포의 물줄기.

– 무등명월과 달이야기

예전부터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달맞이할 때 떠오르는 첫 만월을 보아 달빛이 붉게 보이면 그해는 가뭄이 들고, 달빛이 희면 장마가 질 징조이며, 맑으면 풍년이 들고 흐리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해석한다. 예로부터 달은 우리 민족에게 풍요의 상징이자 길조로 인식되어 주로 즐거움과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이렇게 달에게 소원을 비는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밀물과 썰물 때문인지 보름달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달을 사악하고 불길한 존재

로 인식해 왔고 불안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용도로 쓰였다. 미치광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lunatic'이 달을 뜻하는 라틴어 'Luna'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같은 달을 보면서도 동서양이 이렇게 다르게 느낀다는 점이 참 재미있지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무등명월'무등산에서 솟아오르는 달을 보러 오셨으면 합니다.

그밖에도 무등산에 좋은 풍경과 자연이 있는 명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는 무등산을 찾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오늘 저와 함께'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여행'프로그램을 참가하셨는데요.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잘 보전 된 자연과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간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설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질의 응답)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설문을 통해 꼭 작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설문을 토대로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 여행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등산국립공원 현장지원직 교육·해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